

반도체특별법 시행...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잔걸음'

비수도권 우선 고려...전력·용수 최고 100% 국비 지원
산업부, 지정 신청 등 담은 고시·지침 마련 후 공모 예정
전남광주, 용역 등 조성계획 수립 착수...고지 선점 나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반도체산업 특별법이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 선정'에 역량을 모은다. 11일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

됐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할 법적·재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특별법과 시행령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와 반

도체 클러스터 지정·지원, 산업기반시설 우선 구축, 전문인력 양성, 특별회계 운용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해 호남권 클러스터 추진에 유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이중화시설이나 공급망 안정·산업안전에 기여하는 시설에는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법 시행 이후 지정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을 담은 고시와 지침을 마련한 뒤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모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본 목표와 발전 방향, 명칭·위치·면적, 지역 반도체산업과 기반시설 현황, 인력 양성·연구 기반 구축 방안 등을 담은 조성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클러스터 지정에 위한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

부의 공모 일정과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조성계획서를 완성해 제출할 방침이다.

특별법상 클러스터 지정과 별도로 광주 군공항 일원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광주 군공항 일원 826만4462㎡(약 250만평)을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우선 지정했다.

삼성전자는 425조원, SK하이닉스는 470조원을 투자해 각각 반도체 팹 2기씩 모두 4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두 기업의 투자 규모만 약 895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오는 10월 국가산단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11~12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산단계획 수립과 설계·인허가, 탄약고 등 일부 부지 준비를 본격 추진한다. 기업 수요에 따라 국가산단 부지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산업부 공모에 앞서 관련 용역과 조성계획 수립을 마치고 호남권이 반도체특별법상 클러스터로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특별시 출범 후 첫 '광복절 경축식'

광주전남 통합 의미·새출발 다짐

15일 김대중센터서 개최

'하나된 전남광주...' 주제

광복 역사·독립정신 되새겨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복의 힘으로 하나 된 전남광주, 함께 여는 더 큰 미래'를 주제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한다.

이번 경축식은 광주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맞는 국가기념행사로서, 광복을 통해 되찾은 자유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동시에, 통합특별시 출범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시민들과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날 경축식에는 민형배 시장과 송형곤 시의회의장, 김대중 교육감, 교육광복회 광주시지부장, 송인정 광복회 전남도지부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군·단체장, 광복회원 및 독립유공자 유가족, 보훈단체 관계자, 기관·단체장,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해 광복의 의미와 기쁨을 나누며 독립정신을 되새길 예정이다.

경축식은 오프닝 영상, 국민의례, 환영사, 기념사, 독립유공 포상, 경축사, 기념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경축식 오프닝 영상은 '광복의 역사, 전남광주의 미래'를 주제로 광복, 민주주의, 하나 된 전남광주, 전남광주의 미래 등 4개 장으로 구성. 독립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과 하나된 전남광주로 이어지는 의미를 담아낸다.

기념공연은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참여해 '광복의 빛,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펼쳐진다. 공연은 '저항의 불꽃→염원→광복→미래'의 서사를 바탕으로 독립운동의 정신과 광복의 감격을 되새기고, 그 정신이 미래세대와 하나된 전남광주로 이어지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축식에서는 독립과 민족정기 선양 등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대통령 표창 5명과 시장 표창 6명 등 총 11명을 포상해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기린다.

경축식에 앞서 오전 9시에는 상무 시민공원 내 광주독립운동기념탑에서 민형배 시장, 송형곤 의장, 김대중 교육감, 교육광복회 광주시지부장, 송인정 광복회 전남도지부장 및 보훈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배 행사를 진행한다.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식 유튜브 '전남광주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제6기 동구 인문합계단 발대식 11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남동 동구평생학습관에서 열린 동구인문합계단 발대식에서 임택 동구청장과 인문합계단 단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비보전...6개 기관 공동대응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용역 중간보고·국회 대응방안 논의
광주교통공사 "고령화·2호선 개통 대비 자원분담 체계 시급"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보전 법제화를 위해 하반기 공동 대응을 본격화한다. 광주·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교통공사는 11일 대구교통공사에서 제3차 노사실무자 공동협의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1차 중간보고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대한교통화회는

이날 국내외 도시철도 무임수송 현황 및 사례 분석, 운영기관 재정영향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장래 인구변화와 무임수송 수요를 반영한 재정전망 중간분석 결과 등을 보고했다. 참석 기관들은 무임수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편익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국비 보전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중 국토교통위원회와 6개 기관 노·사 대표자 간담회를

추진하고,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의 필요성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아울러 KTX 영상광고 등 공동 홍보를 통해 무임수송의 공공성과 국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교통공사는 고령인구 증가와 향후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맞물리면서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자원 분담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광주 '유기농 명인' 찾는다
식량·원에·특용·축산 등 분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랜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독자적 유기농업 기술을 보유하고 유기농업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을 발굴해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한다.

유기농 명인 지정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식량작물(벼 제외), 원예작물, 특용작물, 축산, 기타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3300㎡ 이상 유기식품 인증을 7년 이상 유지하면서 저비용·독자적 유기농업 실천기술을 개발·보유한 지역 농업인을 선정한다.

후보자 모집은 오는 9월 2일까지다. 각 시군에서 추천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지정한다.

신청서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바라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등기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되면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명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유기농 명인이 생산한 농식품에 전남광주 유기농 명인 브랜드인 '명인드림' 상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농장에 명인 안내판과 현판을 설치해준다.

김영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농업과장은 "유기농 명인 지정을 통해 친환경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유기농 기술을 확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공시

제 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합282
특장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광주교동법원 2025소614)
피고인 이상호

위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사실의 증명에 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6년 7월 27일
판사 김용규
판사 김민지
판사 최양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공시

제 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합101 통신통신보호법위반 등
(광주교동법원 2025소514)
피고인 박희자

위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에 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6년 7월 27일
판사 김용규
판사 김민지
판사 최양우

2026.08 vol. 159 창간 13주년 특집호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人

구독문의(062)370-7080 광고문의(062)370-7070



커버스토리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 성공...대한민국 균형발전
새역사 열겠다"

800호 반도체 클러스터 현실화-한광·한력기업 유치
교동·대진항·월파·사·용정항 등 저물주물 해기 조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 구독문의 062-370-7080 / 팩스 062-370-7005

Printing

Promotional item

AD

Design

Advertisement

Solution

NACOS

PR

나의 소통코스

종합광고솔루션 - 나코스(유)

www.nacos.co.kr

NAVER

나코스

검색

1004섬 신안 신의도 찰나를 담다!

YouTube

★구글이더기 있습니다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광남일보 iTV

구독·좋아요·알림 설정까지!!

1004 신안 신의도

신안 신의도

광남일보 iTV 프로그램

호국박 자초의 성지, 전남 두륜산 대웅사

나주지역 포교의 중심도량 덕륜산 불희사

광고·사정문의 062)370-7077